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시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루카 10,1-2)

《Communion Of The Apostles》,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제1독서]** ..... 이사 66,10-14ㄷ

**[화답송]** ..... 시편 66(65),1-3ㄱ.4-5.6-7ㄱ.16과 20  
 (◎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갈라 6,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 10,1-12.17-20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23] 온 세상 다스리심

##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때에 <sup>1</sup>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sup>2</sup>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sup>3</sup>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sup>4</sup> 돈주머니도 여행 보파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sup>5</sup>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sup>6</sup>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sup>7</sup>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sup>8</sup>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sup>9</sup>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sup>10</sup>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sup>11</sup>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sup>12</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sup>17</sup>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sup>18</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sup>19</sup>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sup>20</sup>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 ✠묵상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위로를 예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 위로와 평화를 주시면, 주님의  
 종들이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이사 66,18 참조).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하느님의 진노가 닥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이사  
 66,14-17 참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간, 곧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디어 주님의 평화가  
 내렸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귀들마저 복종시킵니다.

하느님께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덕분이 아니라, 당신의 무상적인 은총  
 덕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곤 하였습니다.

이에 바오로 사도는 제2독서에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의롭게 되고, 거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거저 낙인을 받았음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이름을 당신 책에 거저 적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을 소개합니다.

## “천주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봉해야 할 종교입니다”

- 성 정하상 바오로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는 최초로 신앙을 받아들인 복자 정약종(아우구스티노), 성녀 유소사(체칠리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형님은 복자 정찰성(가롤로), 동생은 성녀 정정혜(엘리사벳) 이십니다. 아버지와 형님은 1801년 신유박해에 순교하셨고 어머니와 동생은 정하상 바오로 성인과 함께 1839년 6월 1일에 체포되어 정하상 바오로 성인, 어머니, 동생 순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성 정하상 바오로 (1795 ~ 1839)  
Saint Paul Chong Hasang

신유박해 이후로 성직자가 없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근심이 크셨던 성인께서는 성직자 영입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조선의 내로라하는 유서 깊은 양반이셨으나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는 스스로 중국으로 가는 역관의 하인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그러한 열정과 교우들과의 협력으로, 조선 교회는 1833년 유방제(파치피코) 신부님을 시작으로 하여 모방 신부님과 샤푸탕 신부님, 그리고 마침내 앵베르 주교님을 모시기에 이릅니다. 앵베르 주교님께서서는 그러한 정하상 바오로 성인을 사제가 되기에 적당한 청년이라 생각해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쳐 신품을 주려고 하셨으나 때마침 일어난 극심한 박해로 인해 신품까지는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는 체포 당시에 미리 준비해 두셨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받치는 글)를 종사관을 통하여 재상인 이지연(李止淵)에게 전달하셨는데, 이 “상재상서”는 조선시대 최초의 호교론(護敎論)서로 유명합니다. 상재상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보유론적 입장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논하고, 십계명을 들어 천주교의 실천윤리를

설명하였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무주무군(無主無君)한 종교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주자학적인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사회윤리를 바르게 하는 미덕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진정 어린 호소가 박해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모진 문초와 고문으로 뼈가 부러지고 골수가 흘렀지만 성인께서는 마지막까지 태연자약함을 잃지 않으셨고 마침내 1839년 9월 22일 참수,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습니다.

박해자들은 마치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자백처럼 위장하여 성인의 행적을 선고문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장된 자백을 꼼꼼히 되새겨 읽다 보면 박해자들의 교활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빛나는 성인의 삶이 더욱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즉 “정하상(바오로)이 일평생 천주교를 위해 활동했다는 것과 자기 정신과 마음의 온갖 정력을 기울여 선교사들을 도와주었다는 것과, 불굴의 용기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가톨릭 성인전 上, 325)입니다. 선고문에 담긴 성인의 죄명을 여기에 옮겨봅니다.

“내 범죄를 말씀드리면 나는 신유(辛酉)의 후예로 일가의 악역(惡逆)을 더욱 더했고 사도를 행함을 우리 집의 특색으로 했으며 요술을 전파하고 무리를 속였나이다. 그러나 그뿐이겠나이까? 나는 성을 갈고 종적을 감추었나이다. 무엇 때문이었겠나이까? 내 마음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 풍속을 바꾸고자 힘써 마지막 아니한 것이옵니다. 나는 교를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왕년의 문모사건(文模事件)이나 사영(嗣永)의 백서(帛書)같은 반역과 흉악한 음모의 계획을 응원하고 널리 전파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신부와 주교 같은 외국 사람을 수만리 밖에서 불러왔고, 비밀히 숨어서

→ 3면에서 이어집니다

전심으로 저들에게 복종하고 저들을 위해 진력해 3년 동안이나 그 일을 나의 오직 하나인 직책으로 여겼나이다. 진길(進吉)과 신철(信喆)을 내 심부름꾼으로 보냈으며, 이리하여 시초에는 미미하던 무리가 차차 늘어나 추류(醜類)의 소굴이 되기에 이르렀나이다. 나는 김과 최 등 세 명의 소년을 서양에 보낸다는 지나친 일을 저지르기까지 이르렀나이다.” <가톨릭 성인전 上, 325-326>

위 선고문을 그대로 따르자면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는 신유박해로 선종하신 신앙의 선조들을 잇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위해 가족에게 버림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열정으로 교리를 가르치셨고 모든 신앙인들의 영웅적인 결단을 응원하고 전파하였으며, 신부와 주교를 수만리 밖으로부터 영입하여 극진히 모시기를 마치 단 하나의 소명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 무리를 이루었으며 세 명이나 되는 방인

신학생을 선발하여 성소의 길에 올려놓으신 **조선교회의 반석**이셨습니다.

성당 입구를 바라보며 걸을 때마다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립니다. 성전을 지으며 성 정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모셨던 그 옛날 우리 본당의 초대 교우들의 목말랐던 마음, 그리고 만리타향을 헤매며 목자 없는 양 떼를 위해 성직자를 찾아 나섰던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마음까지. 그러다 보면 만리타향으로 파견된 사제로서, 또 본당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 이곳에서의 삶의 의미를 가슴 깊숙이 되새기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 정하상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천주님께 빌어주소서.

아멘. 하상  
주보®

## 14<sup>TH</sup>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7, 2019

### Laborers in the Harvest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sends out seventy-two disciples to tell the people in the towns that He is coming, and to heal the sick. He tells them that they should pra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Jesus compares the souls of the people to a harvest. He needs people who will go out into the world and gather the souls for Him, and tells the people that they should pray that God will send out these laborers.

Do you know who these people are? They are the priests and other missionaries who work to bring people to Jesus.

Do you think that God might be calling you to be a laborer in the harvest of souls? **Pray every day that you will know how you can best serve God.** Also pray that God will send many holy priests and missionaries into the world.

<<https://www.thekidsbulletin.com>>

### WORD SEARCH Answer

(June 30, 2019)

A	N	S	W	E	R	E	D	E	N	S
N	O	W	H	E	R	E	I	W	F	I
O	H	D	E	A	D	P	F	K	A	F
T	O	P	R	O	C	L	A	I	M	I
H	M	L	E	L	F	O	T	N	I	R
E	E	F	V	O	A	W	H	G	L	S
R	F	B	E	L	R	L	E	D	Y	T
J	O	U	R	N	E	Y	R	O	O	N
E	X	R	O	W	H	I	M	U	E	
S	E	Y	J	B	E	H	I	N	D	S
U	S	E	T	S	L	E	R	E	S	T
S	S	F	O	L	L	O	W	U	S	S

I W I L L

F O L L O W J E S U S

○ 울뜨레야 회합



지난 6월 28일(금) 70여 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울뜨레야 회합을 가졌다. 여성 제17차 꾸르실리스따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신앙 체험담을 서로 나누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길 바란다"는 백인현 주임 신부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 교육부 세미나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교육부 주관) 세미나가 지난 6월 30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용희 그레고리오(변호사) 형제는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요약, 설명해 주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속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 재활용(Recycle) 표어 공모 당선작 시상



본당에서 주최한 재활용 표어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6월 30일(일요일) 10시 미사 중에 있었다. 이 공모전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 본당의 쓰레기 재활용을 홍보하기 위해 3,4월 두 달 동안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상자와 선정된 표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등 "무심코 버리면 오염 신경쓰고 버리면 자원"(장상지 크리스티나)
- 2등 "환경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주님사랑"(센터빌 3반)
- 3등 "하나뿐인 지구사랑 한 분이신 주님사랑"(비엔나 1반)

▶ ANNOUNCEMENT

1 SERVE 2019 Schedule

- **Where:**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Parish Hall
- **7/7(Sun.)** Parents & Campers Orientation **6pm-8pm**
- **7/8-7/10(Mon.-Wed.)** SERVE Camp **8am-8pm**
- **Ques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2 Sunday School Closed on 7/7

- **No Registration Services** for Sunday School

3 CCD Summer Camp

- **When:** **8/2(Fri.) - 8/4(Sun.)**
- **Where:** Pine Creek Retreat Centre, Gore, VA
- **Who:** **Rising 4<sup>th</sup>-Rising 8<sup>th</sup> Graders**
- **Camp Registration Services :**  
**July 7-July 28(Sundays), from 8:45am-1pm** at the Parish Hall
- **Fee:** **\$120/camper** (\$100/camper for two or more campers from same family)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Mr. Taehyun Lee*, Camp Director at **(703) 819-5815.**

CYO News

# WorkCamp 2019

June 22-29, 2019



이번 WorkCamp에 물질,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본당 신부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Mr. Rhee*(Augustine), CYO Asst. Principal



**YONG WOO Stephano KWON**  
2019 WorkCamp Stakeholder

The past week, I had the privilege to serve as an adult crew leader and stakeholder for my parish at WorkCamp. As a stakeholder I could not be any more proud of St. Paul Chung teens who gave a week of their life to show love to one another the way Jesus wanted us to love our neighbors while living intentionally in a Christian community.

I firmly believe that through this experience, the teens were able to walk with God and continue to grow their faith. Thank you all teens who came out to give up a week of your summer to show the love of Jesus to the residents and one another!



**DYLAN JANG**  
11<sup>th</sup> grade

This has been my third WorkCamp now, and I can say that my relationship with God has gotten closer to the point that I have no doubts. This has been the best year so far, not only because I formed bonds with my crew, but also because I resolved all my doubts towards God after experiencing some negativity in my life. This WorkCamp changed me to encourage others to tell them that “He is up there and always watching.”

WorkCamp has changed my beliefs and the expression of my faith. Now that Workcamp is over, I can't wait till next year to see how I'm going to REJOICE!



**SAECHAAN HONG**  
10<sup>th</sup> grade

The past weekend, CYO members went to an event called the WorkCamp where we help out the less fortunate people by rebuilding structures in their homes and making new bonds and friendships that'll last forever. For a week straight, we listened to the word of God and followed Him.

Next year, I hope I can go again and meet the friends I made this year.



**WorkCamp** is a week-long service opportunity for over 800 high school-age teens to serve the less fortunat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You can see WorkCamp 2019 coverage](https://www.arlingtondiocese.org/workcamp2019coverage/) at <https://www.arlingtondiocese.org/workcamp2019coverage/>

**1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7월 7일(일) 오후 1시(B-1)

**2 청소년 사도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7일(일) 오후 1시(A-1,2)

**3 7월 구역봉사자 교육 없습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4 성소와 성소 후원회를 위한 미사**

• 일시 : 7월 12일(금) 평일미사(미사 후 묵주기도)

**5 공동체 기도회 모임 소식**

• 7월에는 소공동체 모임이 없습니다.  
• 다음 소공동체 모임은 8월 둘째 토요일에 있습니다.

**6 단체장 회의**

• 일시 : 7월 14일(일) 오전 11:30(B-3,4)

**7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7월 14일(일) 오후 1시 (B-3,4)

**8 성가 특강**

• 일시 : 7월 14일(일) 오후 1:30 - 오후 3시(성당)  
• 주제 : 성가 기도의 은혜  
• 준비물 : 가톨릭 성가집  
• 강사 : 이종철 베나시오 신부(수원교구)  
• 대상 : 성가대와 성가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분들

**9 CYO(고등부)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 미사 후 (8시, 10시, 11:40), 친교실  
• 등록비 : \$120 / 2명부터 \$80  
• 일정 : 7월 25일(목) - 7월 28일(일)  
• 대상 : 9학년 - 12학년  
• 장소 : Prince William County Park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모 교감 (703)627-0799

**10 동중부 푸르실료 지도신부배 골프대회**

• 일시 : 7월 14일(일) 오후 1시  
• 장소 : Pleasant Valley Golf Club  
• Green Fee : \$100(점심 포함)  
• 문의 : 서경원 (571)236-7071

**11 워싱턴 가르멜 재속회 침묵 영성 피정**

• 일정 : 8월 10일-8월 11일(1박 2일)  
• 장소 : Washington Retreat House  
4000 Harewood Road N.E. Washington, D.C.  
• 강사 : Fr. Steven Paynne, OCD,  
민병섭 바오로 신부님  
• 문의 : 박은미 마리스텔라 (703)955-6633  
박성곤 안드레아 (804)241-7499

**12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뉴저지 일일 성지 순례**

• 자연속에서 티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하는 은총의 자리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7월 13일(토) 오전 5시 출발 / 오후 10시 도착  
• 장소 : 뉴저지 파티마 성지  
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 참가비 : 80불(아침, 점심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비 포함)  
• 신청 : 친교실(선착순 52명)  
(참가비는 현금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 루카 (703)254-7963

**13 2019년 이냐시오 영성 8박 9일 침묵 피정 (동중부 CLC개최)**

• 일정 : 8월 9일(금) - 8월 17일(토), 선착순 30명  
• 장소 : 로올라 피정의 집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64  
• 신청 및 문의 : 임훈호 요한 (703)201-9506  
yoanho\_lim@yahoo.com

**14 하상주보 광고비 납부**

• 하상 주보 광고주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결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한국 외방 선교회 홍보**

• 한국 외방 선교회 미주 후원회 담당 신부님께서  
선교회 홍보와 후원 회원 모집을 위해 분당을  
방문하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 : 7월13일(토) -14일(일)  
• 담당 : 감상균 다니엘 신부



**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7일(일)	연중 제14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성당), 구역봉사자 모임 없음,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바오로회(오후 1시, 나눔터)
7월 8일(월)	연중 제1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 - 오후 3:30)
9일(화)	연중 제14주간	하상 한국학교,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0일(수)	연중 제14주간	하상 한국학교,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11일(목)	성 베네딕토 아바스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
12일(금)	연중 제14주간	하상 한국학교, 평일미사/성소를 위한 미사(오후 7:30), 25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오후 8시), 바오로 형제회(오후 8시)
13일(토)	연중 제14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 모임 없음
7월 14일(일)	연중 제15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가 특강(오후 1:30, 성당)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4주간 : 시편 82-90, 2 코린 1-2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11일(목) 오후 5:00-6:00  
7월 12일(금) 저녁 8:00-9:00  
7월 14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11) : 역사의 현장, 엘시드와 부르고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6월 30일(연중 제13주일)

주일헌금	\$7,808.00
교무금	\$10,920.00
교무금(크레딧카드)	\$6,870.00
특별헌금	\$100.00
2차헌금	\$3,059.00
합계	\$28,75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상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너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정명광(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점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헬(마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바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보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효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정태 요셉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